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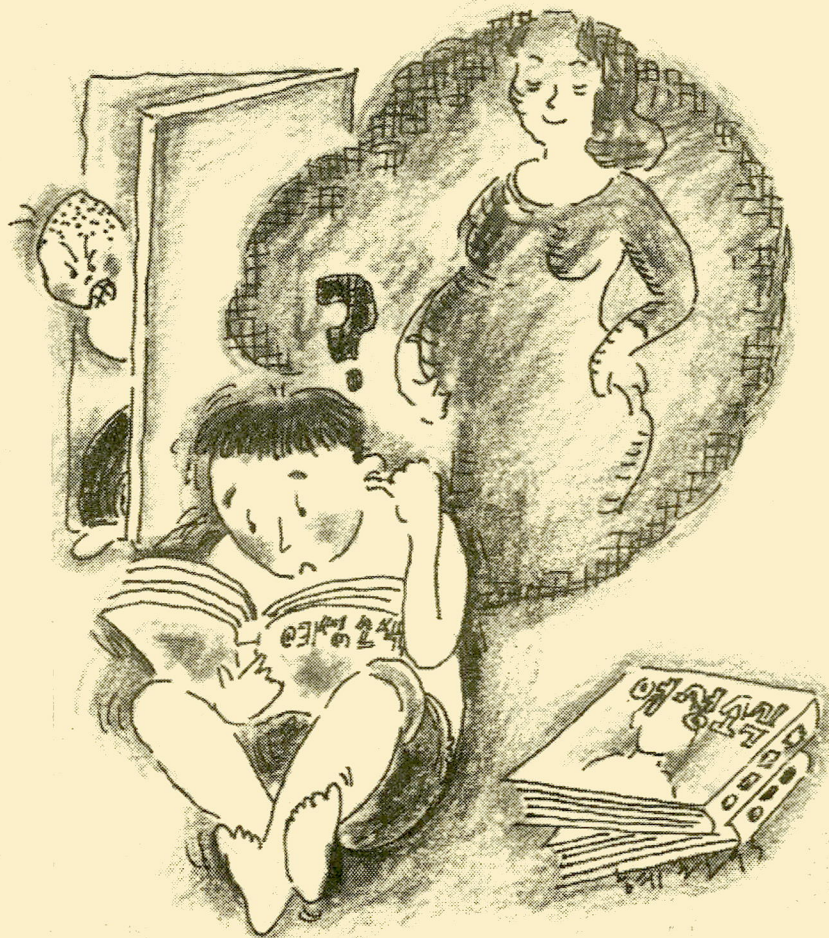
영터리 지식으로 채운 성적 호기심

김 혁/35세. 대학에서 영화를 강의하고 있음

국민학교 때에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던 것은 사실이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영터리 지식과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시기였다. 난 성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방면에 대해서 특히 호기심이 왕성했는데 국민학생으로서 독서에 대한 탐구심이 남달리 강했다.

나는 집에 있던 동화책을 다 읽고 여러번을 더 읽어서 이제 짜증이 날 정도가 되었다. 책장에 꽂혀있는 다른 책을 더 읽고 싶은 충동을 가졌는데 형들에 의해 금지당하기 일쑤였다. 아직 어려서 읽으면 안된다는 거였다.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36권 짜리 한국 문학전집을 도둑질 하듯이 뒤적거렸다. 난 몰래 그런 짓을 잘했다. 내가 집에서 제일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면 난 썩새게 책을 원상태로 꽂아놓고 다른



일을 하는 척 했었다.

그런데 어느날은 그만 독서삼매에 빠졌던지 형이 들어와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책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형이 뒤통수를 탁 때렸다. 내가 놀라 뒤돌아 보는 순간 대학생 형의 짜증난 표정과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이 책 읽으랬어. 조그만 자식이.” 나는 읽다 만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을

거칠게 빼앗기면서 한동안 망연자실해 있었다. 난 형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졌고, 분한 마음에서 어서 빨리 자라 분풀이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다. 어린 나이였지만 내 마음속엔 금지와 구속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경우가 또 있었는데, 이번엔 성에 관한 책을 읽다가였다. 우리 집엔 여성지가 많았다. 아마 어머니나 누나가 보던 월간 여성지였던 것 같다. ‘여체의 신비’, ‘성교’, ‘출산’ 등에 관한 정보가 단행본 부록으로 가끔 나왔는데 나는 그 책을 몰래 훑쳐보곤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책은 그때 나에게 포르노 비디오에 해당할 정도로 가슴이 쿵쿵 뛰고 낯 붉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었다. 하지만 포르노 책이 아닌 그 성교육 책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성

교육을 나만 특별히 시켜준 책이 되었고, 성교육에 있어서 나는 그 나이에 이미 제대로 코스를 밟은 격이 되었다.

어느날 몰래 그런 책을 읽다가 형에게 들켜 책을 뺏기게 되었다. 형은 나를 대단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쫄쫄, 자식, 커서 뭐가 될려고 저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는 다른 때와는 달리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정말 내 자신이 죄를 지은 것만 같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였다. 그렇다고 그 후 내 호기심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성에 있어서만은 그 수치심이 한동안 가슴에 남아 있었다.

국민학교 때 친구들끼리 음담패설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것도 정확한 지식은 없었다. 성교에 대한 것은 어렵듯이 알고 있었지만 애가 배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었으니 영터리 지식이었다. 한번도 배운 적이 없었으니 그건 당연한 것이다. 성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감정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친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본성을 억압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